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2021.4.27~7.27)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께 드리는 글!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싱가포르 성명 채택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쾌거였습니다.

만약 싱가포르 성명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구체적인 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남북철도가 하나로 이어져 서울과 평양, 중국과 러시아로 남북의 열차가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영변 핵시설을 맞바꾸자는 김정은 위원장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치면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로 북을 압박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속내가 싱가포르 성명을 빗바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북미수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도 교착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착공식까지 진행된 남북철도 연결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에 대화 제의를 했다는 보도도 들립니다. 북과 대화를 한다니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기쁩니다. 그러나 대화의 목적이 단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명분 찾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에서 보듯 뻔한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에 빨간불을 켜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문제 삼는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지켜야 할 레드 라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은 전단 살포를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 이은 대북 압박이자 체제 붕괴 기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이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의 비핵화만을 논의하는 자리에 북이 참여할 리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싱가포르 성명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 스가 총리가 강조한 북한 핵능력에 대한 CVID 용어를 배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대화의 성과에 토대해 북미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정으로 북미대화 재개와 성공을 바란다면 지체없이 싱가포르 성명의 계승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이 북미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싱가포르 성명의 1단계 이행안인 하노이 회담의 잠정합의안으로부터 북미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노이 잠정합의안에 따라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반환점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와 함께 미국의 자체 대북 제재도 북미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안보리 제재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하며, 미국의 대북 제재 중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우리나라와 제3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이자 남북철도 연결뿐 아니라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독소 조항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제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싱가포르 성명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위해 남북, 북미, 남북미 정상은 하루빨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노이 잠정합의안에 이은 한 발 더 진전된 2단계 안에 합의함으로써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경로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중국,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뻗어 나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돌도 없는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동승해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을 순방하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귀하가 바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세계적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군사적, 경제적 대결과 패권 추구가 아닌 상생과 공존 공영의 길을 가기 바라며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이 귀하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가단체 대표자 일동